

현대 패션에 나타난 홀치기염 디자인 연구

최 경 희

호남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현대 의상에서의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공예적 성격을 띠고 있던 염직의 개념이 디자이너들의 자유로운 창작욕구를 표현하는 새로운 장르로 대두되면서 지금까지 사용된 재료와 표현방식에 국한되지 않으며 혁신적 재료의 사용과 개발을 통해 새로운 표현기법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온 전통적인 기법인 홀치기염은 단지 실용성에서 벗어나 새롭고 다양한 조형예술로서 그 가치를 추구하는 작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새로운 재료와 기법이 개발되고 그 표현 양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새로운 예술표현의 한 장르로 자리잡은 홀치기염의 현대화 배경과 변화된 표현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과거 전통적 방법인 홀치기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홀치기염이 지닌 뛰어난 예술적 표현성과 독창성을 살린 현대 패션에서의 예술적인 조형영역을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홀치기염에 관한 텍스타일, 염색, 패션문헌자료, 관련 패션 잡지, 인터넷 자료고찰을 통한 이론적 분석과 1990년에서 2002년에 걸쳐 유명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 홀치기염의 표현기법과 조형성 등의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홀치기염의 조형적 특징과 의의를 밝혀내고, 다양한 홀치기염을 사용한 개성적인 표현방법을 통해서 창의적인 의상디자인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역사가 가장 오래된 염색기법인 홀치기염의 용어를 살펴보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는 '프랑기(Plangi)', 영어권에서는 'Tied and work'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지며, 인도에서는 '반다나(Bandana)', '춘리(Chunri)', 아프리카에서는 '아디레(Adire)'로 불리우며 또한 홀치기염이 매우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는 일본에서는 16세기까지는 '유하타(yuha-ta)'로 불리우다가, 현재는 '시보리(sibori)'로 불리우며, 우리나라에서는 '홀치기염', '교염', '교방염'이라고 불리운다.
2. 홀치기염은 천에 문양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천의 부분을 묶고 감고 돌리거나 또는 접어서 문양을 형성하는 특별한 방법이다. 잡아 당기기, 비틀기, 접기, 묶기, 바느질 하여 당기기, 봉에 감기 등 폭넓은 방법을 이용하여 천 자체의 유연성을 이용하여 3차원의 입체형으로 바꾼 후에 압력을 가하여 그 과정이 천에 새겨지게 하여 평면을 입체로 형성하는 과정에서 독창적인 패턴과 재질감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창작의 과정이 그 결과로서 천에 직접적인 형으로 나타나는 매력적인 염색이다.

3. 또렷하지 않고 희미하게 가장자리가 자연스럽게 변지는 색의 농담의 표현으로 단순한 문양 속에서도 다양한 색의 농담으로 대비를 이루어 비구상적이고 회화적인 추상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4. 주름의 요철이 천의 광택이나 색채의 효과를 증가시켜 독특한 질감이 생기며 이것이 두드러진 특색의 하나가 된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요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염료를 데우거나 또는 염색 전에 묶은 천을 삶는 등 방염에 열처리를 가하여 천의 표면상 주름에 영속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5. 홀치기염은 묶는 방법과 이용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무늬가 나타나고 단순한 반복의 행위로 얻어지며, 여러 가지 색을 한꺼번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묶고 잡아 매는 조작으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
6. 홀치기염의 표현적 방법으로는 1) 철망 위 또는 체에 올려놓은 체로 스포이드, 분무기, 에어브러시 등으로 염료를 직접 투입시키는 방법, 2) 붓을 사용하여 화학염료를 날염하는 방법, 3) 묶기, 접기, 스포이드를 통한 염색과 탈색을 이용하는 방법, 4) 홀치기 한 위에 분무염을 사용하여 색상을 의도적으로 다색으로 겹겹이 뿌리면서 홀치기 된 천의 과정 그 자체를 아주 미묘하게 잡아내는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7.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진 면과 견 외에도 종이, 가죽, 플라스틱, 금속, 금박, 알루미늄 등 다양한 재료에 사용되거나 함께 조합시켜 사용하며, 열전도기 등을 이용하여 홀치기의 주름을 영구화시키는 등 시대를 반영하는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등 그 개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8. 전통적인 표현 기법으로는 묶기(binding), 바느질하기(stitching), 접기(folding)의 방법이 있으나, 현대에 와서는 아라시 시보리(arashi shibory, pole wrapping), 트위스 텅(twisting), 기계주름잡기(machine pleating), 주름잡기와 바느질의 두가지 기술의 새로운 조합인 카타노 시보리(katano shibori), 접기염과 판염의 결합에서 응용되어진 호타루 시보리(hotaru shibori, firefly), 납방염 홀치기(wax tie dyeing)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어져 100여종에 가까운 수법이 있다.
9. 대표적인 패션 디자이너로는 일본의 이세이마야께서 트위스트 패션으로 이루어진 의상들은 일명 '이세이 주름' 이라고까지 불리기도 하였다. 그는 형태와 색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여 트위스트는 인간의 신체가 유동성과 움직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대변하는 매체라고 정의하였고, 박은 조각, 혹은 큰 조각의 천을 힘껏 돌린 후에 봉에 감아 부드러운 천조각이 마치 주름진 감자껍질처럼 변하게 하므로써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10. 홀치기염을 사용한 현대 패션의 미적 특성을 살펴보면, 이국풍, 아방가르드, 에콜로지로 구분되었고, 디자이너의 독창적인 작품에 맞도록 색상의 배합이나 소재의 선택, 기법의 다양한 선택을 통해 새로운 창작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의상의 홀치기염 디자인은 단순히 과거의 재현의 차원을 넘어서 작가들의 끊임없는 탐구정신과 창조적 의지로 현대에 와서 표현기법들이 새롭게 개발되고 그에 따른 디자인의 개발도 날로 가속화될 것이다.